

전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8월 완공 준비 착착

창농·창업보육 청년농 육성 한국형 스마트팜 확산 거점 기대

전남도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오는 8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창농·창업보육을 통해 청년농을 육성하고, 관련 산·학·연·관이 협력해 스마

트팜 농기자재 및 기술 개발을 비롯해 국산화·상용화하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첨단농업 융복합단지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총사업비 1313억원을 들여 고흥만 간척지 33.3ha에 청년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1월 현재까지 총 공정률은 60%를 보이고 있다. 청년보육농가를 시작으로 실증단지 등 핵심시설을

올해 8월까지 순차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순천대와 도내·외 선도농가에서 스마트팜 실습 교육 중인 청년창업보육생은 5월부터 혁신밸리에 입주해 첨단 스마트팜의 자가 경영 기회를 갖게 된다. 경영형실습 보육생 38명 중 성적 우수자 12명은 3년간 1인당 1600㎡ 규모 '임대형팜'에 입주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형실습 보육생 45명은 1년간 1인당 330㎡ '경영형실습 온실'에 입주할 수 있다. 전남도는 8월 완공 이후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 역할을 하도록 고흥군, 순천대, 전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8월까지 차질 없이 시설을 준공하고, 이후 본격 운영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세계적인 청년창업 모델이자 한국형 스마트 농업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지방도 노선 조정 소재지~섬연결 8개 노선 승격

전남도내 주요 소재지와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8개 시·군 도로의 등급이 최근 지방도로 승격했다. 이에 따라 도로의 간선 기능이 강화되고, 도서지역의 교통기본권이 확대되는 등 도민의 교통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된 완도-고흥 간 지방도 2개 노선 48.5km의 국도 승격과 도내 교통수요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방도 노선을 일부 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 등급을 조정할 노선 수요 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라 8개 노선 50.3km를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심의·의결한 후 국토교통부의 노선 변경 승인을 거쳐 도로 노선 변경 고시까지 마쳤다. 도로 등급이 조정된 지방도 노선은 현재 추진 중인 '전라남도 도로 건설·관리 계획'에 반영, 우선순위에 따라 전남도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량 분산, 주요 항만시설의 물류비용 절감, 이동시간 단축 등 도민에게 많은 편익을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로 확장, 섬 연결 등 도민의 편의 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지방도 노선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건설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실공사 척결 대책 마련 광주시, TF팀 2차 회의 개최

광주시가 '제2의 학동·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청에서 김종호 행정부시장 주재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마련 TF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청 10개 부서와 관련 기관 등에서 제출한 20여 개의 건축·건설 현장 문제점을 분석하고 혁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부실공사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제도 및 기동반 운영, 불법하도급 실태점검 강화, 모든 건축·건설공사 스마트 위험성 평가 시스템 도입,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 공공감리단 운영 등 혁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개별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안전점검 제도의 통합을 비롯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점검 실효성 확보, 건설공사 품질·안전 관련 법규의 이행력 제고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권영진(맨 왼쪽) 대구광역시장, 이철우(왼쪽 두번째) 경북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272억 투입

시설 확대·생산자 조직화 지원

전남도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농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대와 생산농가 조직화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집중 투자할 사업 규모는 총 9개 사업 272억원이다. 분야별로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6개 사업 188억원, 산지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 생산체계마련에 3개 사업 84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국가 공모사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5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한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수확기 농산물 출하 조절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중·소형 저온저장고 시설 91억원을 지원한다. 자재단가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을 높여 사업추진에 따른 농가 부담을 낮췄다. 농산물 선별과정의 인력난 해소와 상품성 향상

을 위해선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별시설 지원사업 10억원을 지원한다. 개소당 2억원을 보조해 전남 산 농산물의 수도권 유통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작목의 상품 고급화 및 규모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도내 2개 시·군에 총 30억원의 유통·물류 기반시설 신축을 지원, 농가별로 개별 대응하던 생산·유통 구조를 규모화·조직화해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생산자 조직의 유통조직 내실화를 위해선 시군원에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선별·출하하도록 선별비 69억원을 투입한다. 유통 효율화와 농가 소득 향상에 힘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1만3000농가 육성을 목표로 GAP 시설 보완·인증 수수료·안전성 분석비 총 15억원을 지원해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아이파크 붕괴 관심 갖고 힘 모으겠다”

김영록 전남지사·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 현장 방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6일 오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을 찾아 “광주의 아픔에 대구와 경북도 힘을 모아 돕겠다”고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말했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사고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오고 싶었지만, 이 시장님과 공직자들, 구조대원들이 사고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마음으론만 함께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처럼, 형제처럼 걱정해주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종자 가족들과 구조대원들에게 대구·경북 시·도민의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전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와 함께 이날 시·도지사들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의 공사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부실공사 등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후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200만 전남도민을 대신해 광주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전남도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돕겠다”고 이 시장에게 말했다. 이들 시장·지사에게 앞서 지난달 25일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도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 및 자원봉사자 구호물품 등을 위한 지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중화장실 몰카 방지 163곳에 안심 스크린 설치

광주시가 공중 화장실에 일명 '몰카' 범죄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칸, CC-TV, 안심비상벨 등 안전·편의시설을 대폭 보강한다. 광주시는 “올해 20억 7100만원을 들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 공중화장실 8곳을 신축하고 노후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특히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올해 공중화장실 163곳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이다. 안심 스크린은 화장실 하단부 빈 곳에 설치하는 칸막이, 휴대전화 등 촬영기기를 밀어 넣어 몰래 촬영하는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CC-TV,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파손된 대·소변기, 세면기, 타일 등 시설물도 개보수한다. 민간 개방화장실 소유자가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공사비용의 75%(최대 750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밖에도 광주경찰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와 안심벨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집중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은 도시 이미지를 대표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